



남송회, 쌀 200포 전하며 보훈 유가족 위로

남원지역 기관장 모임인 남송회(회장 양충모 시장)는 22일, 남보훈단체에 백미(4kg) 200포를 기탁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남송회 회원들과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회장이 참석하였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물품을 전달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귀갑 보훈단체협의회장은 “11년 동안 잊지 않고 보훈단체에 후원해 주시는 남송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다며, 단체 회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역사회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 시장은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안락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서, 보호조치 협력 유공자에 감사장 전달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지난 21일 영광기독신화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질환자 상담·임입·치료 등 경찰업무에 협조한 관계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감사장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경찰 및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에 협력한 영광 기독신화병원 김민철 원무과장, 김은옥 수간호사에게 전달했으며, 보호조치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자들은 평소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서 비상상황실 운영 훈련

남원소방서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119신고 폭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대응단 및 비상인력을 동원한 ‘소방서 비상상황실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북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도내 15개 소방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실전 훈련으로, 동시다발적인 재난이 발생해 119 수신 화선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극단적인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통제 능력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기전대, 서울대 13-3 완파하며 압도적 승리

전국대학야구선수권 2승 쾌거... 김지호 4타점 · 안은찬 3안타 맹타, 양경호 50닝 완투승

전주기전대학교 야구부가 서울대학교를 콜드게임으로 제압하며 제8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 전주기전대는 지난 15일 충북 보은스포츠파크 B구장에서 열린 대회 리그전에서 서울대를 13-3으로 꺾고 5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전주기전대는 경기 초반부터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기를 잡았다. 1회 상대 실책과 집중타를 묶어 4점을 선취한 뒤 3회 2점, 4회 3점을 추가하며 점수 차를 벌였고, 5회에도 4점을 더해 콜드게임을 완성했다. 이날 전주기전대 타선은 9안타와 10개의 사사구를 기록하며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여기에 9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는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서울대 수비를 흔들며 경기를 압도했다. 김지호는 2타수 2안타 4타점으로 중심타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고, 안은찬도 4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김재현과 심도운도 적시타로 타점을 보냈으며, 윤재연과 최지웅은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양경호가 50닝 동안 20타 3실점으로 서울대 타선을 막아내며 완투승을 따냈다. 안정적인 제구와 위기관리 능력을 앞세워 팀 승리를 견인했다. 김태원 감독은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



고 경기 내내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결과가 콜드게임 승리로 이어졌다”며 “공격과 수비, 주루 등 준비한 전략이 고르게 잘 맞아떨어졌다. 좋은 흐름을 다음 경기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천 총장은 “그라운드에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끈끈한 결속력과 투지는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주기전대는 앞서 한국폴리텍대학교를 12-2, 7회 콜드게임으로 꺾은 데 이어 서울대전까지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며 대회 2승을 기록했다. 전주기전대는 22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를 상대로 대회 3승에 도전한다. /오상근 기자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사단법인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기성)가 지역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맞춤형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22일 센터는 삼례읍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2026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자원봉사 박람회는 1회 봉동읍 둔산공원, 2회 삼례읍 너른마당공원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안전면허시험장과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삼례로타리클럽, 서울에스치과, 사랑의 밥차 봉사단, 서금요법봉사단, 한마음봉사회, 사랑드리봉사회 등 지역 내 다채로운 기관과 봉사단체가 동참해 힘을 보탰다. 행사장에서는 친환경 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체험과 원예 프로그램, 돌보기 처방, 팔빙수 나눔 등 주민들이 일



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자원봉사 체험 부스가 가동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 민원실 직원 대상 친절 청렴교육 실시

남원시는 22일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양충모 남원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시장은 민원실이 시민이 먼저 마주하는 곳인 만큼 직원의 응대가 시 행정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종표 민원과장은 “민원 담당 직원의 업무역량을 높여 친절한 행정을 제공하고 직원 간 배려와 존중이 있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아동 권리 존중 캠페인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지난 21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윤을 높이는 기술’을 주제로 열린 play남원 아카데미를 찾은 많은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과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아동학대의 유형 및 신고 방법 △긍정양육 실천 △아동권리 존중 문화 조성 등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지난 21일 서장, 과장, 지역관서장 등 관리자 2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쾌한엔터로 공동대표 채현숙 강사가 나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 사례 분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빗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